

聖句

인자의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
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복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라 함이라
마가 10:45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623番
集人 吳 允 泰
主筆 田 榮 澤

社說
福音新聞 主일을 앞두고

신문은 사회의 이목(耳目)
이요 연락하는 신경계통이요
민중에게 새지식을 주고 정신
적 양식을 공급하며 때로는
민중의 목탁이 되고 경종이 되
는 귀중한 기관이다. 다시말하
면 사회에 신문이 없으면 새
로운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없고
서로 연락할 수도 없고 민중이
잘못에 깨우칠 수도 없을 것
이다.
이제 재일 대한 기독교총회
는 「복음신문」이란 귀한 기관
을 가졌으니 진실로 뜻하지못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총회에
주신 은사일뿐 아니라. 온 재
일교포의 축복이다. 그리하여

신문은 사회의 이목(耳目)
이요 연락하는 신경계통이요
민중에게 새지식을 주고 정신
적 양식을 공급하며 때로는
민중의 목탁이 되고 경종이 되
는 귀중한 기관이다. 다시말하
면 사회에 신문이 없으면 새
로운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없고
서로 연락할 수도 없고 민중이
잘못에 깨우칠 수도 없을 것
이다.
이제 재일 대한 기독교총회
는 「복음신문」이란 귀한 기관
을 가졌으니 진실로 뜻하지못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총회에
주신 은사일뿐 아니라. 온 재
일교포의 축복이다. 그리하여

反共捕虜드디어釋放
自由陣營의宣傳攻勢를意味

歸환을 거부하는 反共 中國出身 및 北韓出身의 解放軍將士 自來 金世界의 注目
을 끌었으며 解放軍 反對하는 共産黨의 重要分子 民間人으로서 解放軍을 主唱하는 廣
連속과 의의 聲을 올리는 休戰成立 그 自體에도 相當한 空氣를 吹어내고 있는 일
이었으며, 解放後의 事態에 對面하여 國連속은 萬全의 對策을 강구해 오던 바,
지난 二十日 午前 八時半에 無人地帶以南의 國連軍 및 韓軍 地帶로 그날 밤
중(二十一日 午前〇時)까지에 反共으로 約二萬二千名이 返還되었다.
이날은 兩中이 있었는바, 無人 地帶 附近에서 停戰하는
白粉參謀, 國府측 補少將 廣連
속, 四少將 以下の 將領을
반으로 질서 정연하게 無人地
帶을 行進하여 왔다 한다.
中國出身으로는 國府에서 파
견된 使節團에 의하여 仁川에서
一日約五千名씩 三日間에 一萬
四千五百名이 臺北에 輸送될
것이라 한다.

家族的雰圍氣로善導
三個月間은政府서保護

韓國政府 關係當局에서 十八
日 言明한 바에 依하면 解放
된 韓國出身 反共으로 約八千
名에 對하여서는 國防部에서
解放後 三個月間(未確認)은
生活를 保護할 豫定인데 社會
部와 保健部가 分擔하여 敎育
의 責任을 질 것이라한다.社

정적적 기
獨力으로라도
北韓同胞一年
李大統領
李大統領은 十六日 記者會見
席上에서 北韓의 同胞는 一年
에 百萬名씩이나 줄어가니 우
리는 언제까지라도 그저 기
뵈고 싶으며, 政治會議開後
三個月이 지나도 統一이 決定
되지 않으면 우리는 獨力으로
라도 統一을 達成해야 하겠다
고 다음과 같이 言明하였다.
一九五〇年 共産軍이 南韓
을 占領한 때에 北韓에는 七百萬의
同胞가 있었으나 三年이 지난
오늘날은 四百萬밖에 남
아 있지않다고 한다. 곧 一年에
百萬이나 되는 사람이 없어지
는 셈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는것이
다.
윤크라資金으로
火災地區
윤크라韓國再
지난 十四日 釜山에 온 李
大統領의 天幕村視察 團은 釜山
에서 韓國再建을 爲한 윤크라
(YUNKRA) 援助資金 中에서
第一次로 四十萬圓을 釜山 火
災地區 復興事業을 爲하여 配
定하도록 努力하고있다고 言
하고있다.
이는 釜山火災地區復구사업을
위하여가장심심한關心을기우리고
있는 消息通의 한사람으로서
十日 아침 記者에게 明白히
말한것인데 釜山市에서는 前記
言明을 聽던中이 윤크라의

부 종업원의 대우보다 훨씬
나다고 한다. 또 일부를 제외하
고는 시내에 나와 직업을 가
질 수 있으며 외박(外泊)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프린트)이라는 정신적인 고
통과 파란만장한 생활에 몰아가
지는 것이 서론 일이라
한다. 이러한 대우와 취급은
인도상(一) 보아 좋은 일이다
우리 나라 출신의 수형자도
二十四명이 있다.

國土統一

에百萬死滅

記者團에 言明

聯會談은 暫히 結果가 나
지 않았지만 政治會議가 開
되어 三個月 以上 지나도 韓
國의 統一에 自由行動을 取
하지 않다. 그러할 경우에 우리
美國의 援助를 依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美
國이나 友邦과 協議하기 위하여
時機를 延宕시킨다면 以北에
있는 同胞는 물론 우리 韓國
남아 서지 못할 것이므로
共產軍을 以北으로부터 追放하
는지 早急 決斷을 내려야 할
것이고 如何間 統一目的을 위
한 길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十萬弗

再建援助

委員長團長言明
責任者라는 占에서 極히 注視
하면서 그 効力을 期待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또한 韓
中將은 釜山市 再建事業을 爲
하여 第一次로 四百萬圓의 援

自由世界의 人間的 感激

釋放된 反共捕虜
中共의 非行을 暴露

중립국 포로 관리 송원위원
회에서 포로관리들 그만두었기
때문에 二萬二千餘名의 반공산

근처에 재일 동포의 현상이
다. 무료로 잘 먹여 주고 집
세 전세 수도로 없이 살 수
있으며 설비 좋은 병원의 치료
를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외출은
자유로 밖에서 장사도 할 수 있
는 이낙원(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재일 동포 중 자살자
가 십분의 일이라도
누가 사람은 최상의 幸福을
얻을 것이다. 하였는데 실제로
목의 苦痛에 관하여서 苦痛을
느끼지 못하지 못하는 것이
재일 동포의 현상이다. 재일
동포가 苦痛을 느끼지 못

福音新聞主日을 지키는

在日大韓各教會에 드림

聖恩中貴教會日誌月長하옵시기를
삼가 기도 하오며 本紙發刊을
爲하여 物心兩面으로 當
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敍白 去年十月에 在日大韓基督
第九回 總會에서 福音新聞社를
爲하여 來二月主日 二月七日
各 教會가 特別 捐補하기로
決定하게 된 것은 本社로서는
잇보다 榮光으로 생각하오며
來二月七日 主일을 크게 기뻐하
고 있습니다. 本紙는 在留僑胞
의 教化와 在日 우리教會發展에
不可缺의 存在이라는 것과 責任
이 重大함을 自認實感하는 바
입니다. 特히 在日大韓基督教
各 教會와 江有志諸賢의 續
的인 援助가 없이는 到하지
使命을 達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福音新聞社

社長 吳允命
主筆 田榮澤
事務 尹錫淵
己白
在日大韓基督教各教會貴中

어떤 이가 「우리 동포들이 정
치적인 세력은 있으나 경제적
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하는 것을 보고 딱 반가
웠다. 하였는데 우리가 그 말
에 對應을 하는 것은 아니
나 우리 나라 정부에서 政
되어 온 고명한 분으로 남의
나라 정부의 聲譽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동포를 尊重하고
당신을 尊重한 것을 尊重하
지 않는다. 이럴 경우 바깥에
현 사정에서는 연회자도 있다
면 집자

로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지만
공산측에 모라가기를 한사코
반대하여 마침내 자유세계에서
살수 있게 된 기쁨에 넘치며 공
산주의를 반대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氏 나는 三年前에 학생
분에 있다가 공산군에 징발을
당하였으나 국련군에 포로로
후 자유세계의 인간적 보호에
감격하여 내가 바라던 자유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氏 나는 학생으로 공부하
는 도중에서 의용군이라는 명
목으로 복선에 왔습니다. 나는



△ 몇몇 전
어떤 일본인
의 친구가 일
방식 장기(一
種)와 우
리 나라의 장기를 비교하여
말한 말이 있다.
△ 「일본식 장기(將棋)는, 발
달된 현대의 전쟁에서 포로를
포획하여 제 것으로 삼듯이 파
는 저 편의 말(兵)을 도로
빼수 있는 것이 그 발달된
점」이라고
△ 과연 한국 전쟁은 전쟁 중
에서도 가장 발달된 전쟁인지
판문점(板門店)에서 장기판을
드러다 보니 파먹은 말(兵)을
내놓아라 못 내놓았다에 三年
△ 조국에 아니 돌아가도 또
하나의 조국이 있는 이런 파
먹이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떻
게 복잡하게 될 리가 없다.
△ 이것이 한국 전쟁의 속도
(縮圖)요, 제2차 대전까지도
문제가 아니 되었 것이 같
기 어려운 문제가 될 까닭.
△ 반공 포로가 二三百萬이나
있을 보고 三百五十萬명이란
진공(眞共) 국련군 포로를 제
조한 것은 무덤에도 체면을
생각는 장이다.
△ 앞서 물려 오면 소문을
들기엔 二킬로 되는 무인지대
위에는 어마어마한 공기가 떠
돌아 만일의 경우의 양면의
행동이 염려라 하더니.....
△ 원컨대, 포로문제로 현존된
정치외교를 빨리 열도록 하라
그것만이 평화의 길이다.

少年會友組織

第一回
공동의회

종전지 사가이교회라면 누구
 판서지방에서 큰 교회중
 나라 생각하였다 그 교회가
 放後 敎人歸國으로 예배당까
 총회가 정리하였고 사가이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되었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시 西成敎會를 통하여 전도
 설립하였으며 客年十二月

京都教會 공동의회

勉青總會五開催

名古屋教會七

大垣教會

金昌齡, 七名
여집사, 金己倫, 玄圭興, 李
순, 申惠경, 李갑이, 鄭世順,
李贊浩, 李昌齡, 윤정숙, 李命
이인된 집사는 如左하다.
여집사, 이춘대, 이용환, 이성기
김집사, 김수태, 강복선, 김경복
김기념,

一月三日 會
 會部지방 오오카끼 회에서
 一月三日 會 會部의회를 열어
 會部도 시무 會사를 다음과
 같이 申正하였다 한다.
 남자 김병기 會사, 김현영
 會사 서영교 會사, 이우정
 會사, 홍영기 會사,
 여자 정선현 會사, 감집사

東京教會의 젊은 層에 寄書

金元國

젊은 青年의 特長이라고 할 만한 것은 研究心과 活動力이라는 두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두가지의 발란스(Balance)가 잘 될때에 비로소 青年다운 가장 명랑활달한 생기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活動的인 面이 많다 할지라도 研究心이 不足한 青年은 底力이 없기 공연히 肥다는 架空的印象을 免치 못할것이며 한편 研究心만이 強하다 할지라도 그 研究를 살리는 活動力이 없으면, 內面的인 비판만을 잘하는 青年이 될것이다. 例를 들어 德國, 어느 社會各處의 部分을 莫論하고 잘 盛長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과 態度를 본다면, 研究的인 그르피(Grup)와 活動的인 그르프라는 두개가 있다.都會에서 말할때에 前者는 聖書를 研究한다든가 或은 神學을 工夫한다든가 하여 信仰은 먼저 信學을 樹立하는 데서 出發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後者は 무엇보다도 祈禱와 傳道가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盲目的인일망정)

그러나 이兩 그르프가 다 같이 各各事情과 個人的인性格에 따른다는 것이 크다고 할수 있으나 대체로 보아 研究的인 面을 代表하고 있는것이 學生層이며 活動的인 面을 代表하는것이 其他 一般의 職場層의 青年이라고 말할수 있다.

東京教會의 사정과 현실은	論者의 見解와 理想에 반드시 適合하다고 斷言할 수 없었다마는	대체로 보아 이 두 面을 어떻게 調整하는가 또는 育成해가는가에 都會에 있어서 젊은 青年指導의 重要한 點點이라고 하겠다 이것에 對하여 一、二、의 私見을 말해볼까 한다.	먼저 그 하나로 教會의 信仰은 어떤 취미 或은 스포츠 等과는 대체로 틀리는 것이며, 世界와 人生에 있어 眞理를 樹立하고 이것을 現代에다 呼訴하는것인 以上 먼저 神學의 研究는 必是이다	信仰은 知識이나 理解를 超越한것이 아니면 안되겠으니 그것은 同時에 信仰속에 包含되어 있지않으면 안될것이다.	知識을 包含치 않은 信仰은 感情의인 熱情은 있을망정 時
代의 思想에 맞아 이겨내어 教會를 勝利에 引導하기는 不可能한 것이다。	一例를 들어 이것을 歷史的으로 생각하여 본다 할지라도 칼빈(Calvin)의 弟子에게서 는 많은 有能한 教會指導者가 輩出하여 世界 傳道史를 豐富하고 널리 各邦에 許多한 銳의 指導者를 내어 傳道에 多大한 功을 내었다. 이것을 通하여 볼때 神學의 研究와 그 訓練과는 얼마나 教會에 있어서 缺乏되어서는 안될 必要한 것인가를 잘 알수있다.	젊은 世代的 基督者는 神學을 學잘 研鑽하여 그 속에서 觀音의 인 바를 信仰의 樹立을 期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특히 생각할바는 이研究的의 態度를 한 걸음 잘 못딘어서는 대단히 危險한 것이 될 두려움이 있다」	계속		

東京有樂處에서 열마전 부
 상업되고 있는 廿世紀 에스
 화사작품 藝衣는 향간에 크
 나큰 화제를 이루고 있다 심
 지어 日本基督教協議會 教會학
 部에서는 基督教主日學교
 학생 學生들과 敎會員들의 감
 상을爲하여 임장권 贊인을
 표적하였고도 전한다.

그만큼 이 영화는 불만
 가치가 있을가하는 생각도
 다 마는 전업 무가치한 영화
 도 아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十字架를 지
 고 빌라도의 命定을 떠나는 데
 서 부터 문제가 전개된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의 운
 명을 기다리면서 심심부리로

宗教
映畫

聖

年慶의 各部 事務보고 및 一
九五四年度 예산안을 심의하고
입법을 개설했. 결과 다음과 같
다.

會長 黃義生 副會長 河泰仁
書記 金福分 副書記 權秉浩
會計 金昌日 副會計 李宗煥
傳道部長 崔京植 智育部長
池順出 智育部長 權大현 智
樂部長 金福煥

선출된 금년도 사무 집사는
남집사, 박현선, 조원국,
여집사, 文正烈, 金振아,
도연이, 장미봉 제씨라 한다.

大阪西成教會

金正三長老장집식

二月十四日 主日 오후二時半
西成教會에서 金正三長老장집식
을 關西地方 會長司式으로 거
行 하였다 한다.

金집사는 해방전부터 서성교
회 교인으로서 해방후 西成會
회하여 꾸준히 봉사하였으니
오래 수고하였다.

권철 김권철
금년에 선정된 제직중 용영
기 집사는 신임이라 한다.

衣

예수님의 입으셨던 흉포를 제
비 사이코로지 박사 마세라르
라는 사람이 찾았다.

그때에 일대 광풍이 일어나
며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벌이다 하는 소
리가 들린다 마세라르는 흉
포를 던지고 십자가를 붙잡았
다. 그의 손에는 예수의 상

처에서 흐르는 피가 묻는다
마세라르는 그 피 흐르는
십자가위에 달린 예수를 쳐다
보았다. 그이는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이 알지 못

함이 진동하며 비가 퍼부었다
마세라르는 벌벌떨면서 자기
몸을 가리워 달라고 외쳤다.

今日의 韓國實情

國民의 六分一이 罹災民 十萬孤兒 中半數收容

韓國을 視察하고와서

지난 十二月에 韓國을 視察
한 機會를 가졌었다. 一年만에
처음가는 旅行이었으니 特別히
休戰後 처음가는 訪問이라 한
層曰 好奇心에 이끌려 社會部
를 찾았다.

戰亂前의 一般國民의 生活動
態를 正確히 파악하자면 그
나라의 社會部를 通하여 社會
保障制度 日우기 우리 社會部
같은 機關을 經은後의 나라라
면 그나라의 戰亂未亡人數 孤
兒數, 遺家族數, 避難民收容所의
實地報告等의 여러가지 社會現
象을 考察함이 타당하리라 믿는
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와 같
은 戰亂途上에 놓여있는 「아브
라함」 狀態로 인하여, 國家豫
算의 大部分을 軍費에다 充當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教育 및
文化施設等을 通하여 大局의 情
勢를 軸出한다는 것은 極히
困難한 일이 기때문이다.

教育面을 例하면 次代의 人
材를 養成하며, 文化의 繼承者
를 養成하는 韓國大學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現下 科學文
明時代에 있어서 韓國工業復興

아까 예수의 흉포를 받아들이고
있던 하인이 그 흉포를 마세
라르에게 걸쳐주었다.
마세라르는 공포에 쌓인채
그 흉포를 땅 바닥에 땅가치
고 무서운 김에 구두로 밟아
버렸다.

이 흉포 보고 있던 하인은
당신이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읍니다 나는 당신같은
險長을 섬길 생각이 없소
하고 흉포를 안고 종적을 감
추어 버렸다.

마세라르는 로마에 갔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흉포를 불태
버리기爲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다니다가 예수의 공로로서 속
량받은 사람들의 승리적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고 감
동을 받는다.

로이드. 다구라 原作

로이드. 다구라 原作

의 重要을 雙層에 지니고 있
는 工科大学은 지금 서울 城
東郊에 있는 師範附屬中學里
의 一층舍를 빌려서, 十餘個의
教室을 가지고 實驗室과
圖書室에 充當하여 一千餘名의
生徒를 教育하고 있다. 우리
가 通한 그중에서 著名의 天
才를 除外하고는 大學卒業이
는 者以外에 無엇을 獲得하
여 나오지는지 可히 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지금의 韓
國動態를 있는그대로 파악하자
면 社會部를 通함이 가장
至當한 길이라 생각한다.
먼저 厚生局에서 얻은 數字
를 살펴보면 現在의 孤兒數는
約十萬名이며 그중 全國四三四
個의 施設收容所(昨年九月末現
在의 育兒, 養老, 感化, 不具,
其他等 合計 數字임)에 五萬
二千八百九十一名을 收容하고
있으며, 約二萬名은 거리로 방
향하는 집없는 天使들이며 그
나머지는 一般家庭에서 生活하
고 있다한다. 여기서 나타난
約二萬名이라는 거리의 天使들
의 問題는 우리가 얼핏 생각
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나, 實上 將來의 有望한
우리들의 어린이들을 保護할 對
策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 韓
國人 한사람 한사람의 責任이
아닐수없다. 그리고 이 無對策
이 비저면 한토막의 悲劇은
거리의 天使들의 一部의 生活
이 困難한 집안의 어린이 아이
들의 職業인 구두닦기(令一사
인) 少年들의 大部分이 性病保
衛患者였었다는 保健部 發表에
는 놀라지 않을수 없는한데,
그들 少年들을 그렇게 만든
當局의 責任도免치 못할것이다.

그리고 動亂이 자아낸 避難
民의 總數는 二百八拾七萬七千
九百九二名이며 그중 要救護對
象者는 二百五拾八萬八千二百七
九名이고 救護實施數는 一百六
拾八萬四千五百七五名이니 要救
護對象者中 아무런 援助를 받

지 못한다며 九拾萬三千七百四
名의 難民은 어떠한 生活方
途를 打開할 것인가? 그리고
戰災民 總數는 三百五拾七萬七
百七五名이니 南韓의 人口總
數의 六分一以上이 戰災民이
니 이 難民은 數字는 무엇일
수할 것인가? 그全體 戰災民
中 全人口의 十三分之一에
當하는 壹百四拾二萬七千九百九
拾二名이 아무런 救護의 惠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程度
모든 秩序가 崩괴되고 政府
의 國民의 福利를 위하여 出
로全 存在價値가 있는것이
이 難民은 數字를 잊지말기
를 堅持하는 바이다. (統計數字는
昨年九月末現在)

口들은 難民局에서 얻은 數
字를 살펴보자. 事實으로 인
하여 戰亂은 戰爭未亡人의 營
이나 그중 要救護對象未亡人은
二拾九萬三千五二名이라 한다.
南韓 全女性一千四拾四萬三千三
百三拾六名中의 이정도 要
救護數字과 아니할수없다. 그리고
公式의으로 登錄된 慰安婦는
八萬名이라고 하나 實際의 數
字는 이의 倍가 된다는 말
을 들었다. 混血兒數는 不
過 三百五拾八名 이었다. 그리고
全女性中 國文未解讀者가 一百
九一萬八千六百五拾名 이라는
全女性의 五分之一程度를 占하
고 있다. 文盲愚治의 問題도
앞으로의 艱難의 하나이라
아니할수없다. (統計數字는 昨
年 六月末現在)

이 外에 總히 患者數 四萬
五千名中에 未收容者 二萬八千
名 이란 數字가 一般社會에
미치는 影響은 자못 輕視할
일이다.

그리고 戰爭에는 어느나라고
勿論하고 必然의으로 附隨되는
傷兵軍人의 生活對策 및 그들의
職業不施等 一般國民의 生活保
全을 圖謀할 政府의 對策을
時急히 要望하는바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國民 한사
람 한사람은 祖國再建이란 堅
固한 自覺心에서 相互協助하여
지금의 逆境을 克服하여 最後
의 平和의 岳山을 建設하여주
기를 바라마지 않은바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

多摩川傳道所 李仁夏牧師

마래 5. 14 - 16



(著 者)

성경 가운데에 있는 한마디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契機)를 지을
때가 있다. 그것은 경우와 처
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되어서
좀이 하나같이 말씀이 되어서
그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동
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한마디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므로 그런 일이 일
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그 한마디 말씀이
성경 전체의 배경을 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
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
경을 읽을 때의 태도를 가리
키는 것이 된다. 한마디 말
씀이라도 성경 전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구(聖句)를 우리는
이것을 아무 뜻 없는 아름다운
말로만 만들어 버릴 때
가 많다.

역시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
가 이 마태복음의 유명한 말
씀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떠나 생각할 때에 아주 모순을
느끼는 말이 되고 만다.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이해
한 뒤에 성경에 돌아가면 거
기에서 다음 같은 모순된 말
씀을 찾을 수 있다. 마태 5:
「너희를 보며 성령을 사람에게
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말고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
에 알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다. 성령을 사람이 알도록
함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게 하라는 말과 정

반대의 말씀이다.
다음에 요한복음 일장을 보
면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
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十五)
하는 말씀이 있다. 원래 사
람은 어두운 존재로 되어 있
다. 그 세상에 참 빛이 왔
고 한다. 이 빛을 간음한
온 열지라도 잠간 비취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참
빛이 아니고는 열광(열광:
三十五) 성령 가운데는 사람이
그 가치로 말미암아 빛이라 하
는 사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여
기 있다. 「그 빛을 사람 앞
에서 비취게 하여...」.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빛이
될까 어두움, 곧 이 세상에
온 참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빛을 생각 할 수 없
다. 만약 우리가 빛이라면 그
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읽으면
대담하게 「너희는 세상을 비취
는 그리스도의 빛을 얻은 자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는 세
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어두움에 다스리지 않고 영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1:12) 「너
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
라(요 1:36) 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더욱 잘 생각
하자면 빛을 비취지 못하는
영원과 비교해 보면 참 빛
이다. 5:15에 등불을 켜서
말하세 두 자는 어리석은 일
을 하는 사람의 비유가 있다
빛을 믿으로 여기지 않고
을 막아 버리는 영혼이다.
우리가 여기서 빛을 막는
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까? 그것을 하나님을 영혼을
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羅 7:14) 영혼이다. 육 자
기 의성이라는 말이 붙는다
마는 이것을 회개함으로 다른
자기를 나타내며 다른 자기를
영화함이다. 재물을 회개
함으로 이들을 영으로 하고
심정에 이 사실이 나타나지
있다. 우리가 법에서 서서
생각할 때 예수의 죽음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
적 동기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죽은 것으로 만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마태 23:13

한국의 요리법

재료	(원산지)	소금	한글사시
밀가루	한글사시	기름	조금
설탕	한글사시	표고	한글사시
물	한글사시	소금	한글사시
부추	한글사시	표고	한글사시
김치	한글사시	표고	한글사시
간장	한글사시	표고	한글사시
후춧가루	한글사시	표고	한글사시
후춧가루	한글사시	표고	한글사시

세계적으로 40人中 一人
韓國에는 비교적 적은 쌍둥아

사람의 遺傳에 있어서 平均이 된다. 이와같이 많은
疾病의 遺傳關係를 말하고자 한
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다 른 동
植物과 달리 實驗의 結果는
果를 보기가 곤란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家門을 調査한다
가, 혹은 「쌍둥이」들을 資料로
하여 研究함이 普通이다. 쌍둥
이에 대하여서는 世上 사람들이
많이 研究하고 있으며 特別히 美
國에 「니코루스博士」는 약七八
萬쌍의 많은 쌍둥아를 조사하
었다. 그 중에 있어서 우리가 관
통 80名 가량 있었으니 그 중
에 두사람이 쌍둥아가 있다고
함이다. 結局 四〇名에 한사람
남방사람들중에는 비교적 적다

고 한다. 예를 들면 「구라파」
中國 北方에 스칸디나비諸國에
는 많으며, 地中海地方에는 그
수의 절반가량이 된다고 한다.
東洋에는 동고地方에는 많으며
韓國, 日本, 以南諸國에는 적다
고 한다. 特別히 中國에는
적다고 學者들이 말한다.

쌍둥아라면 一卵性과 二卵으로
나누어 一卵性이라면 成熟한
卵에 한알에 精자가 結合하며
元來는 한사람이 된 것이 쌍둥
이가 된 것이며, 또 하나는 처음
부터 두알이 두 精자와 結合하
여 同時에 成熟한 것이 二卵
性이라 한다. 그리하여 一卵
性이면 그 遺傳質이 똑같으며, 二
卵性이면 素質의 多少와 別
個임으로 그 遺傳의 率이 적다
한다. 一卵性이면 性의 決定이
男男, 女女로 됨이 大部分이며

二卵性이면 大體로 男女의 性의
쌍이 되는 수가 많다.
이 同姓 異姓의 率의 比를 一이라고
하면 異姓 異姓의 率의 比는 二의
比例가 된다. 一:二:一 男
男 一 女 女 一 男 女 一 男 女 一
總數의 四分의 一이 一卵性이라고
하였다. 一〇〇쌍둥아가 있었
으면 그 중 二五쌍이 一卵性이
다. 그리하여 一卵性과 二卵性
을 比較하면 一卵性에서는 그
素質的, 遺傳的으로 濃厚하다
고 하며 二卵性의 쌍둥아에서
는 어느 정도, 普通兄弟間과 같이
된다고 한다. 特別히 一卵性의
쌍둥아는 그 環境이 다름지라도
依然 이 같은 점이 濃厚하다고
한다.
即 遺傳과 環境이 問題되므로 예
를 들어 쌍둥아의 같은 점을

밀 만 두 (봄 겨울철)

(열다섯그릇)

밥가가	오름
정육	한데
숙주	한
두부	조
김치	이
간장	한
호주가루	다
물	소
	오

한큰사시
조금
세조각
두큰사시
두뿌리
조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이다.

그때에 자기 속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며 보배를 집고 그것에 담은 생활이 시작된다. 그야말로 참다운 빛을 비추는 자다. 이것이 또한 착한 행실이다. 그리스도 없이 는 믿음도 착한행실도 사랑도 다 헛된 것이 된다. 루터 선생은 그 저서 「선행론」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선행이라」고 단정하였다.

우리의 매일 생활이 매일

하는 기도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거룩하게 하옵소서」하는 말씀 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이때에 잊을수 없는 한 이름을 상기(想起)한다. 그는 세례 요한이「그는 옹하고 나는 쇠하리라」하는 말씀으로 자기의 열성으로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그 빛을 높이 든 자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날이 자기의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께 모든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 그는「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향하여 돌인 자다.

- 1 펄펄 끓는 물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놓고
- 2 고기는 얇한 살로 채쳐서 갖은 약념을 해서 볶아놓고
(만두 그릇위에 얹을 것이니 그릇수를 보아서 조금만
반들지니라)
- 3 얇한 살로 곱게 이겨서 약념을 해서놓고 (만두속절것)
- 4 더러는 맑은장국을 끓이고
- 5 숙주는 꼬리를 따고 씻어 대치 꼭짜서 도마에 놓고
잘게 이겨서 행주에 짜서 꼭짜놓고
- 6 두부도 정한 행주에 꼭짜고 물없이 해놓고
- 7 김치는 잘게 섞어서 알로 이겨서 꼭짜 놓고
- 8 표고는 잘씻어서 이겨놓고
- 9 이제는만두 속을 준비 할것이니 만두속에 넣을 김고기와
와 숙주와 김치와 두부와 표고와 여러가지 약품들을
다 한데 섞어서 간을 잘 맞추어 놓고
- 10 반죽해 놓은 것을 도마에 놓고 얇게 밀어서 큰종지같은
은 둥근 모양으로 떠내어 가지고
- 11 한조각씩 틀고 소를넣어 붙여접어 가장자리를 마주 부
친후에 만두를 양손으로 마주붙잡고만두 중간으로 약간
밀어보내면서 맞붙인 가장자리를 한편으로 얹어 붙이고
만두 밑바닥은 약간 편편하게 해놓고보면 귀뿔모양과
흡사하리니
- 12 이렇게 빚을때마다 잿을 두세개씩 넣어서 빚어가지고
- 13 꼭꼭에나 소반에 밀가루를 뿌리고 빚은 만두들을 서로
붙이 않도록 벌려놓았다가
- 14 맑은 장국이 펄펄 끓을때에 한개씩 넣어서 삶을지어다
- 15 한참 끓어서 만두가 익으면 국에 띄오를 것이니 곧
그릇에퍼서 볶은고기를 넣고 계란약념을 골파죽처럼 섞
어서 띄워 놓느니라

十 갈지 않은點을 一로 하면
一性性은 十이 많으며 二性性은
이 많다. 이것이 實 確實한
傳으로 困한 決定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表에 있어서 一
性性당동아와 二性性당동아의
同을 表示하면 一부터 一〇番이
一性性당동아며 十一—二〇까지
는 二性性당동아를 表示한다.
그中 같은點을 二、갈지 않은點
을 $\times$ — $\times$ 에 點호를한것은 點
호가 없을것보다 그程度가 약
한것을 表示한다.
表示같이 一性性당동아는 十
부분이 같으며 二性性당동아는
大部分이 갈지 않은 二性性에도
近似한것이 많다. 이것을 보좌
傳으로 困한性狀을 잘알수있
다.
다음兩權의 當동아에 있어서
질병에對한것을 二表와 같이

表示한다。特히 耳下腺炎이 二四 쌍中 二三 쌍이 一지하며 腎臟炎은 二四 쌍中 二三 쌍이 一지하며 性을 같이 한 것은 一 쌍이다。性을 같이 하면 二卵性 z 에는 十 二三 쌍中 一七 쌍이 되고 다른 異性二卵性 P. z 일때 十은 一四 쌍中 九 쌍이 되는 셈이다。여기서 一卵性과 二卵性과에 對하여 각각 일미치한 比率를 보면 一卵性에는 四.二% 二卵性에는 二六.一%가 된다。그리하여 一卵性의 쌍둥이의 不일치한 比率로 二卵性의 不일치한 수의 比率를 除한 것이 最便의 數이다。이 수가 많아도 一卵性은 一지한 것이 적고 二卵性은 不一지한 것이 많다。即 遺傳關係가 濃厚하다고 할 수 있으나 其他實驗의 으로 遺傳關係를 알아 보면 現代第一 서운 암 (癩) 에 對한 研究을 一例를 들면 美

國 시가 고市에 있는 「라이스」라는 女史가 研究한 것을 말하든 뒤로二十年間 질러서 그간의系統的으로 뒤의十五世代을 질러 그수가七千五百마리이며, 七百五拾系圖을 나누어 그性質中的 約五百種의 위가 「암」이 遺傳한것을 研究하였다。即 A라는系圖은 百四十二, 암이 생기는 系圖과 B라는系圖은 全然 나옴이 없으며, C라는 系圖은 二五四十二等 他種을 分離함에 成功하였다。 이와 같이 世界 各國에서 이와 같은 研究하는 者들이 많으며 大多한 金錢과 時間과 勞力을 通하여 遺傳關係를 調査하여 우리人生의 優生을 爲하여 분투 努力하고 있다。

第二表

種 類	E-Z			Z-Z			P-Z			不一致總數		不一致總數 一致總數 一致率
	++	+	-	++	+	-	++	+	-	E-Z	Z-Z	
耳下腺	23	1	17	6	9	5	4	2	261	42	261	6.2
腺	281	4	230	16	177	11	14	65	4.6			
麻	54	5	43	8	30	6	85	157	1.8			
水	178	7	140	10	104	10	35	663	1.6			
高	32	19	20	35	17	13	373	556	1.5			
日	42	13	28	14	22	9	236	333	1.4			
紅	25	45	16	54	18	35	613	711	1.24			
液	14	21	8	24	7	30	69.0	730	1.25			
肝	4	10	3	16	-	13	714	843	1.2			
胃	1	12	2	11	-	7	923	846	0.9			
脾	313	8	22	27	11	38	205	531	2.7			
神	6	12	2	9	1	3	667	818	1.2			
物	16	10	7	19	3	9	385	731	1.9			
體	-	11	-	7	-	3	1000	1000	1.0			
胃	5	7	-	9	1	3	583	1000	1.7			
小	7	4	3	5	1	6	364	625	1.7			
腸	30	8	9	24	8	12	210	727	3.5			
胃	13	3	4	19	1	16	18.7	826	4.4			
腸	6	4	2	10	-	9	40.0	833	2.1			
頭	10	6	-	20	2	8	37.5	1000	2.7			
胃	32	7	7	46	18	22	17.3	868	4.8			
胃	25	7	2	13	7	6	21.9	86.6	3.9			

第一表

[illegible]

東京都目黒區上目黒六ノ一三四五

李振榮

自由와 平等

吳貞根

「집메르」는 자유와 平等을 同時에 約속하는 것은 空想家가 아니면 큰 「아마시온」이라고 喝破하였다. 自由와 平等은 市民革命의 口實이었으며 또 目的이었다. 그러나 市民社會가 發展해 감에 따라 自由와 平等은 重大한 모순을 가져오고 말았다. 無限한 社會라고 生 覺되었던 近代社會는 决코 無限한 社會가 아니었으며 市民革命 當時에는 予想조차 未했던 새로운 不自由를 가져오는 限界있는 社會였었다. 「아담스미스」가 永遠의 眞理인 듯이 부르짖었던 自由放任도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받는 眞理였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依하여 調和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 때의 꿈이었다. 「집메르」가 한 말은 곧 이러한 近代 市民社會를 가리킨 것이다.

美獨獨立이나 拂國革命을 通해 획득한 自由와 平等이란 本來 專制的 壓迫 에서의 自由이며 貴族이나 領主의 特權에 對한 平等이었다. 모든 「人間은 날 때부터 自由」이며 神의 앞의 平等이라는 思想은 「法の 앞의 平等」을 意味했다. 그것은 모든 人間은 自己目的을 가진 尊嚴한 存在이며, 自由人格者라는 輪象의 人 平等을 意味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本質에 있어 平等한 存在인 同時에 不平等한 存在이다. 各人의 能力이 다르듯이 各人의 能力도 千差萬別이다. 이러한 人間의 本質의 人 不平等은 「國家」로부터 自由인 近代 市民社會를 必然의 것으로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드디어 「自然의 調和」란 豫想조차 未했던 「資本의 暴力」으로 化하여 그야말로 경제적弱者는 自己의 能力과는 아무 關係없이 새로운 支配를 받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市民法의 絶對的 原則이었던 「私有財産의 不可侵」과 「契約의 自由」가 結局에 있어 少數의 資本家만을 保護하는 原則으로 墮落하였기 때문이다. 「私有財産의 不可侵」은 蓄財의 手段을 가리지 않게 하였으며 「契約의 自由」는 資本家의 一方的인 要求條件을 勞働者에게 强要하는 自由였었다.

그 結果는 少數의 獨占資本家와 無數한 産業豫備軍을 만들 어 내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自由란 「빌어먹는 自由」이며 平等이란 「數」에서의 平等이다. 그리하여 市民社會는 많은 緊張과 不安을 자아내며 自己 否定的인 方向으로 새로 發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大元을 말리었던 國家도 市民의 實質的인 自由와 平等을 保護하기 爲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近代民主國家가 福祿國家를 標榜로 삼는 理由이다.

(제 36 시 관) 張 曉

비교해 보면,
밖 (外) → 바깥 (外邊)
(임자씨 → 임자씨)
믿다 (信) → 믿음 (信仰)
(움직씨 → 움직씨)

막다 (塞) → 마개 (栓)
(움직씨 → 움직씨)
웃다 (笑) → 웃습다 (可笑)
(움직씨 → 그림씨 = 形容詞)

이와 같이 뜻이 달라진 것도 있고 쓰이는 법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낱말로서 따로 쓰이는 말의 조각이 그 말의 밑감이 되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합입니다.

위에 보인 말들을 그 말을 이룬 어원 (語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적으면,

밖알, 믿음, 막애, 웃습다
가 되고, 그 어원을 밝히지 않고 적으면

바깥, 믿음, 마개, 웃습다,
가 됩니다.

사실 우리말의 맞춤법에 있어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원을 밝히어 적는 다 해서 쉬울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저 소리나는 대로 적는 다 해도 알아보기 어려우며 틀리기도 쉬울 것입니다. 또 소리대로 적는 다 해도 꽃답다 (芳)

한글 교실

제 4 편 한 낱말 안의 받침

이제까지는 낱말 (單語)에 토가 붙는 것과 씨갈 (語尾)이 바뀌어 붙는 말본의 법칙과 말소리 (音聲)의 법칙에 관하여 설명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의 낱말이라도 어떤 것은 임자씨 (體言)나 품이씨 (用言)의 줄기 (語幹)에 다시 다른 부분이 붙어서 그 뜻이 조금 달라졌거나, 또는 그 말의 쓰이는 법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가령, 바깥 (外邊), 믿음 (信仰), 마개 (栓), 웃습다 (可笑) 이것들은 다 한 개의 낱말입니다.

바깥~에, 믿음~이,
마개~가, 웃습서 (버섯)
이와 같이 토와 씨갈이 붙어서 쓰이는 한 개의 낱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의 이루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바깥, 밖애, 밖으로"로 쓰이는 임자씨, 밖"에, 알"이 붙어서, 밖알"으로 된 것.

믿음, 믿어, 믿으니"로 쓰이는 움직씨 (動詞) 줄기, 믿"에, 음"이 붙어서, 믿음"으로 된 것.
마개, 막아, 막으니"로 쓰이

筆者는 明大大學院法研究生

는 움직씨 줄기. 막 에
 에 가 붙어서. 막 에
 로 된 것.
 우습다. 웃어. 웃으니. 로 쓰
 이는 움직씨 줄기. 웃
 에. 읊다 가 붙어서
 웃음다. 로 된 것.
 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들이
 본말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와 같은 말은
 꽃답다, 곧답다, 고답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을 수
 도 있을 것이니, 지금 쓰는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덮어
 놓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통일된 말로 적을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山봉에
 休憩있고
 모든 나무 끝에
 숲속 바람도 고치었네
 고요하다
 森林에는 새 소리도 고치었네
 몇는것이 조용태야
 그대도 섰네니
 ☆ ☆ ☆
 즐겁던 그때나 또 슬픈 그때가
 애달은 動搖로 모두 恩慕에 새로와
 기쁨과 哀痛과의 사이는 아질하게 멀어져
 나의 마음 들로 彷徨하네.

晚鐘

越波 譯作



카트 - 金鶴村 作

동백꽃

姜 舜

분명 밖에서부터
 화적은 들었다
 岫 나가고
 고래고래 발악이 자라나
 내뿜을 한
 안드러운 어둠
 저지린 풍야
 어마어마 바스려져 나가도
 無常 이룬다 구름장이
 유별난 창공을 덮어
 몸술 땅 위에는
 발바닥이 불질않아
 장그러운 정은 부둥켜 안은채
 허연 이만 살았다만
 엄동설한에도 기어날 구멍이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라
 어리석은 무리여
 보아라 차운 바람에도 피는
 동백꽃

布木都散賣商

李大植

京都市右京區西大路四條本入下ル
 電話 壬生 (84) 一四七一番

輸出入業

三剛物産株式會社

代表取締役 金 炯 吉

東京都港區芝西久保巴町三番地

電 略 シバミツダイヤ

電 話 (43) 7 5 4 3
 6 8 5 3
 5 2 0 0

東京都新宿區歌舞伎町879

株式會社 メトロ商會

主 方 元 俊

電 話 四谷 (35) 2 0 5 6
 2 0 5 7